

교육·문화 소외... ‘전국 최고’ 부양비에 허리 휜다

‘2015 사회조사’로 본 전남도민의 삶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보다 높은 부양비를 부담하고 있었다. 전남도민 10명 중 2명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하거나 우울해서 상담이 필요할 때 상대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사회관계망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의 2015년 사회조사를 근거로 전남도민의 삶을 들여다봤다.

아플때 집안일 부탁·애기상대 없다...각각 22.4%·19%

공연 관람 22.4%...‘이주 의향’ 25.7% 4년새 9.2% 늘어

◇부양비, 노령화지수 전국 최상위= 전남도내 65세 이상 고령자는 모두 39만 618명으로, 조사시점의 인구 190만5616명의 20.5%를 차지했다. 이 같은 노인인구로 인해 전남의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는 165.0으로, 전국 평균 94.1를 크게 넘어섰다.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역시 34.1로, 전국 평균 17.9의 거의 2배 수준이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어려움은 건강 문제(43.0%), 경제적인 어려움(31.0%),

외로움·소외감(13.2%) 등에 집중돼 있었다.

지난 2014년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한 남녀 9357쌍이 각각 32.3세, 29.2세에 부부가 돼 4135쌍이 46.3세, 42.1세에 갈라섰다. 재혼 건수는 2030건으로, 연령대는 남녀 각각 47.7세, 43.5세를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29.5%가 분거(分居) 가족이 있었으며, 직장(55.1%), 학교(32.8%), 자녀교육(2.7%) 등의 이유였다.

월별 가구 소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16.7%가 50만~99만원, 15.8%가 50

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특히 군지역일수록, 여성일수록, 고령자일수록 소득은 낮았다. 50만원 미만 소득자 가운데 여성이 70% 이상이었으며, 70세 이상이 44%를 차지했다.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근로 및 사업 소득(73.1%)에 이어 정부 또는 사회단체 보조(10.3%),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7.9%), 재산소득 및 퇴직연금 등(7.9%), 기타(0.9%) 순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응답자의 30.7%가 정부 또는 사회단체 보조, 20.0%가 자녀 또는 친척의 지원으로 살고 있었다.

부담되는 생활비는 식료품비(28.8%), 보건의료비(17.9%), 주거비(13.4%), 교육비(12.9%), 교통비(7.6%) 순이었다. 70세 이상에서는 보건의료비(46.8%), 40대는 교육비(31.6%), 나머지는 식료품비의 부담이 컸다.

생활필수품은 대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이 각각 38.4%, 22.3%로 소비 패턴이 고착됐다. 전통시장 이용자는 14.6%에 불과했다.

◇교육, 문화, 레저에서는 소외=‘평생 교육’ 이용 실태를 묻는 질문에 76.8%

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23.2%는 주로 직업 및 업무 관련, 건강 관련, 문화·교양 관련 등의 분야에서 평생 교육을 경험했다. 70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평생 교육 경험자는 9.6%에 불과했다.

도민의 17.6%가 흡연자로, 이는 2년 전인 2013년 조사결과(18.3%)에서 소폭 하락한 것이다. 30대와 40대의 흡연률이 각각 25.8%, 26.8%로 가장 높았다. 2013년 51.0%였던 음주자는 53.6%로 소폭 증가했다. 음주자 중 31.6%가 월 2~3회, 26.8%가 주 1~2회, 22.3%가 월 1회 이하 술을 마셨다.

향후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응답자의 18.2%가 똑같이 보건의료시설, 문화생활 공간을 꼽았다. 필요한 복지서비스로는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서비스(29.9%),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서비스(19.4%),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18.3%), 아동양육지원 및 돌봄서비스(13.7%) 순으로 선호했다.

선호하는 장래 방식을 묻는 질문에 41.2%가 화장 후 소독장, 39.6%가 화장 후 봉안 등 80.8%가 화장을 바란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75.5%)에 비해 4.5%가 늘어난 수치다.

현 거주지의 거주기간은 25.7년으로, 특히 군지역은 31.5년에 달했다. 계속 거주 이유는 ‘예전부터 살아서’가 30.1%로 가장 높았고, 직장(23.1%), 주택문제(2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25.7%로, 2011년 16.5%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15년 1년 동안 스포츠 및 레저 활동에 참여한 도민은 39.0%, 영화감상을 한 도민은 52.3%였다. 지난 1년 동안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한 도민은 각각 22.4%, 15.6%에 불과했다. 과거보다는 증가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인터넷 이용자 60.4%의 평균 이용시간은 1시간52분으로, 2년 전에 비해 이용자(54.7%)와 이용시간(1시간44분)으로 소폭 증가했다. 응답자의 45.7%가 평균 1.9개의 SNS에 가입돼 있었다.

몸이 아파 집안 일을 부탁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할 상대가 필요할 때 “없다”고 응답한 도민은 각각 22.4%와 19.0%였다. 2년 전(23.3%, 19.6%)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또 돈을 갑자기 벌릴 수도 “없다”는 응답율은 43.8%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시군 대규모 사업 중앙투자심사 통과할까

기업도시 진입로 등 12건 5745억원 심사 의뢰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농산물검사소 청사 건립, 여수시 이순신도서관 건립, 광양시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등 전남도와 각 시·군이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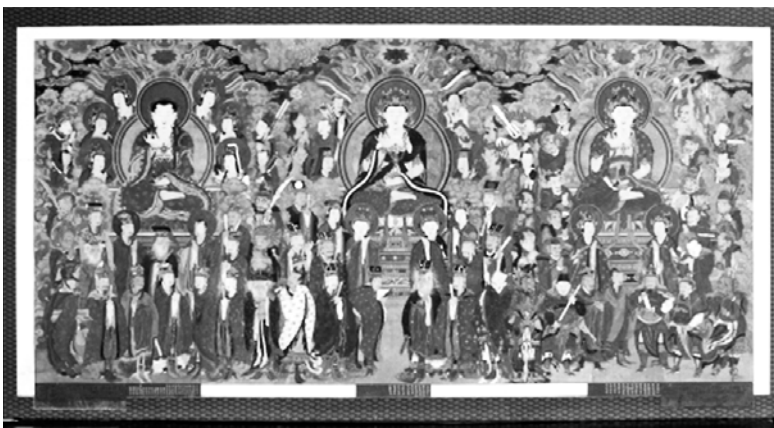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2건(5745억원)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전남도의 경우 사업비 200억원 이상, 시·군은 100억원 이상이다. 전남도가 2건(3146억원), 7개 시·군이 10건(2602억원)의 사업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다.

전남도는 우선 지난해 조건부 가결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 2단계(3036억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농산물검사소 청사 건립(110억원)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목포시는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408억원), 여수시는 이순신도서관 건립사업(199억원), 순천시는 순천 뿌리기술 지원센터 건립(202억원), 청단고무소재 상용화지원센터 건립(214억원) 등을 추진중이다.

광양시는 광양시립 영세공원장사시설 확충사업(131억원),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사업(165억원),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605억원) 등 3가지 사업을, 곡성군은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성능시험센터 건립(380억원), 화순군은 동북천 생태하천복원사업(198억원), 완도군은 완도를 군내2지구 소재지 종합정비사업(100억원) 등을 행자부 심사 통과 후 착공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예고한 ‘구례 천은사 삼장 보살도’ ‘구례 천은사 관세음’ ‘대세지보살좌상’(왼쪽부터).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다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

보물 지정 예고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와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 등 보물로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앞으로 30일 간의 예고 기간, 각계 의견수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구례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1776년 천은사 대법당(극락전) 중단(中壇)에 봉안하기 위해 화련(華蓮) 등 14명의 화승(畵僧)이 제작한 것이다. 삼장보살도는 수륙재와 관련된 불화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중기부터 제작되기 시작해 16세기 이후 많은 수의 작품들이 남아 있다. 천은사 삼장보살도는 18세기 후반기 불화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존

하는 삼장보살도 가운데 유일하게 화기(畵記)란에 흰색 글씨로 등장하는 인물들을 낱말로 기록돼 삼장보살 도상(圖像)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구례 천은사 관세음·대세지보살좌상은 보살상의 복장(服裝, 佛裝) 불상을 만들 때 뱃속에 봉안하는 사리 등 물건)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태능(太能)과 영원(靈源)의 발원으로 현진(玄眞)을 비롯한 5명의 조각승들이 1614년 6월 조성한 불상이다. 천은사의 두 보살상은 중생을 닮은 듯 실재감 있는 얼굴, 힘 있는 선묘, 늘린 비례감을 갖춘 17세기 전반기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공무원 79명 채용 공고

전남도는 5일 수의직과 사회복지직 79명을 채용하는 2016년도 제1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했다.

신규 채용 인원은 수의직 20명, 수의연구사 1명, 사회복지직 58명 등이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저소득층 5명, 장애인 7명, 시간선택제공무원 4명은 별도로 구분해 선발한다.

전남도는 수요가 많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조기에 선발해 6월 이후 곧바로 시·군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3월에 시험을 실시한다.

수의직류는 담·오리 등 사육조류 도축검사 단계적 의무화에 따라 시급성을 감안해 매년 8월 시행해오던 시험을 앞당겨 시행한다. 수의직은 20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수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에서 응시 가능하다.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거주하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오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접수센터(htt://local.gosi.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필기시험(3월 19일), 면접시험(5월 3일)을 거쳐 5월 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윤현석기자 chadol@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세컨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무출혈 / 무통증 / 무봉합 / 무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도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바쁜광주안과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의결 제150204-중-68156호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